

[신약 속 미로 찾기 9] “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?”

권준 목사 / 1998 / 페이지수: 1

누가복음 16장에 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온다. 그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였으나, 주인에게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리게 된다. 진상 파악에 나선 주인은 당장 장부를 들고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청지기는 쫓겨나게 될 때를 대비하여서 채무자들의 빚을 가볍게 해 줌으로 그들의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이다.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행동을 안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였다는 것이다.

예수님의 결론은 ‘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앞날을 대비하라’이다. 주인의 빚을 마음대로 가볍게 해준 청지기를 잘했다고 하였음은 무엇이며, 또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은 또 무엇일까?

먼저 ‘불의한 재물’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. 재물이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니다. 그것을 어떻게 모았고, 쓰는가에 따라서 선하고 악함이 판명되는 것이지 재물 그 자체에 선함, 악함의 성격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.

또한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였다고 하였는데 영어(NIV) 성경에 보면, ‘Shrewdly’라는 단어로 이는 ‘분별력 있고 약삭빠른’이란 말이다. 즉 그는 자신의 앞날을 약삭빠르게 분별하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고, 주인은 그런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감탄하였다는 것이다.

그렇다면 재물로 친구를 살 수 있을까? 이 이야기의 뒤쪽에 가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온다. 그는 많은 불의의 재물을 가진 부잣집 앞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다. 만일 그 부자가 자신의 재물로 나사로를 조금만 도왔더라면,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그 부자에 대하여 좋게 말하지 않았을까?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자니 그를 도와주자고 하지 않았을까? 그 부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위하여 말하여 줄 친구가 단 하나도 없었다.

예수님은 하물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지라도 앞날을 예비하여 자구책을 세우는데 빛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가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.

우리는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? 앞날을 대비한다고 하여 주식에 부동산에 보험에 투자하고 이자가 어떻고, 배당은 어떻고 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가?

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지니고 지혜롭게 살아보자. 앞날을 예비하여 보자,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투자하여 보자. 사탄도 감탄(?)할 것이다.

* 출처 : 온누리신문